

# 10월 16일은 '사랑의 친구들' 바자



사랑과 정이 넘치는 바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0. 10. 16(토)~17(일)
- 장소 :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앞뜰



믿을 수 있는 남도농산물  
해외 유명상품  
꼭 필요한 생활용품  
사회저명인사의 기증물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글로벌어린이재단  
주최: 사랑의 친구들 www.friends.or.kr / 734-4945~7

## 지난 2009 바자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통문화연구회 ● (주)가인 ● (주)김설영패션 ● (주)까사미아 ● (주)농협창동농산물종합유통센터 ● (주)누리시아 ● (주)더스파코스메틱 ● (주)동원F&B ● (주)동일드방레 ● (주)두산 ● (주)디스킨컴퍼니 ● (주)리얼컴퍼니 이송사업부 ● (주)미스지콜렉션 ● (주)비이날 ● (주)박홍근호패션 ● (주)빙그레 ● (주)비리리 ● (주)성한락기 ● (주)슈퍼리어 ● (주)신원엔에스 ● (주)실버텍스 ● (주)에이블씨엔씨(미샤) ● (주)에프앤씨 대 산 ● (주)에림양행 ● (주)웅진씽크빅 ● (주)유유 ● (주)제이아이콜렉션 ● (주)질경이우리웃 ●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 (주)코주부 ● (주)크리스패션(PING) ● (주)클리오 ● (주)포송(파코리반) ● (주)한성에프앤 씨 ● (주)한아인터네셔널 (양스모드) ● (주)K.H.J. Inc(강화속부띠끄) 3.1여성동지회 ● 5.17가족 ● 고구려삼계탕 ● 구정치과 ● 글로벌어린이재단 ● 금호전기(주) ● 길병원 ● 김대중도서관 ● 김성수 ● 김순자 ● 김영미 ● 김혜수 ● 노이의집 ● 농협중앙회 ● 대경상사 ● 대림산업(주) ● 대전제분(주) ● 동진와인 ● 리스포사 ● 립비지 ● 명원문화재단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 비리비 ● 버버리 ● 보우실업 ● 보혜양조주 ● 블루마린 ● 비둘기회 ● 비룡소 ● 삼송식품 ● 선패식품(주) ● 서울형류(주) ● 성북한마음봉사회 ● 소야코리아 ● 손스마켓메이커스 ● 송학식품 ● 수은실업(주) ● 아제르 ● 순창매실고추장 ● 스위스대사관 ● 시대의창 출판사 ● 신라구두 ● 신성통상(주) ● 심슨 ● 아람에미리트대사관 ● 아시아나항공 ● 아이폴스 코리아 ● 아태여성아카데미 ● 아하바 브리카 ● 안나리아 ● 애경산업(주) ● 에스디기독교회 ● 에스에이치엘네트웍스 ● 여성신문사 ● 연근해수산 ● 영월드제화 ● 예촌 ● 오션스파캐슬 ● 오온현부띠끄 ● 외환은행-나눔재단 ● 우리들생명과학(주) ● 유한킴벌리 ● 이글리노크 리아(주) ● 이레에스티 ● 이스라엘대사관 ● 이썩희 ● 이영희프린트 ● 이용진 ● 인사모 ● 전라남도목련회 ● 정재욱 ● 종이문화재단 ● 최금숙한복문화 ● 칠레대사관 ● 타임스퀘어 ● 한림기획 ● 한반도재단 여성위원회 ● 한진택배 ● 회원담 ● 호주대사관 ● CASA Living ● CGV ● CJ제일제당 ● Gian corporation ● Global Trade ● Hyun ● JK상사 ● L.J.미용예술교육원 ● Macy's 서울지점 ● Pacific Islands Club Korea ● sissel

발행인 : 김성재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483  
Tel : (02)734-4945-7  
Fax : (02)734-4948  
E-mail : folove831@korea.com  
Homepage : www.friends.or.kr

# 사랑의 친구들

Friends of Love

2010년 9월 / 통권 제 30호



## 사랑과 희망, 바자 한마당

김성재 ('사랑의 친구들' 회장)

사랑의 친구들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올 여름은 정말 무덥고, 국지성 호우도 많이 내려 힘든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이 한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자연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우리를 겸손히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8일로 김대중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그분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인권, 복지, 선진경제, 평화는 국민을 위한 그분의 헌신적 삶에서 꽃 핀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말하면서 이것이 한 국가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 더 나아가 자연의 생명불이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글로벌 데모크라시, 코스모데모크라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보다 크게 감동 받고 그분을 성자로 생각하는 것은 그 분이 실천한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 7년여 감옥생활과

50여 번의 가택 연금, 5번 죽을 고비와 십여 년간 망명 생활을 했지만,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고 모두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정말 보통사람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분은 용서와 화해, 사랑과 평화, 행동하는 양심을 마지막 유지로 남겼습니다.

이런 그분의 일생을 진솔하게 고백한 자서전이 출간되었습니다. 출판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자서전을 읽고 있습니다. 그 자서전이 김대중대통령 한 개인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 때면 사랑의 친구들은 "사랑의 바자"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여름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리는 이 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친구들 여러분!

우리 모두 10월 16일, 17일 바자 한마당에서 기쁘게 만나 우리의 사랑을 더 크게 꽃 피워 봅시다.

여러분들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함께 하는 캠프, 비가 와도 즐겁다!!

## - 글로벌어린이재단 후원으로 여름방학 동안 11개 캠프 진행

공부방이 연합해 진행하는 연합캠프는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한 사업만큼 공부방으로서의 준비를 효율화하고 상호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공부방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 참여로 위축되어 있는 자신감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된다. 올해에는 11개 지역의 연합캠프를 선정해 총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여름방학 동안 11개 캠프가 모두 진행됐으며 총 85개 공부방 1,467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자원봉사자, 공부방 교사들이 캠프에 참여했다.



### ♥ 사랑의 이웃사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숲속 우정캠프

2010. 7. 26~28 | 전북 군산시 청소년수련원  
★ 열린학교·엘림·꽃동산·생명샘·세움터·아이소리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130명  
★ 연합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한마음이 되어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 용산구지역아동연합회 여름 탈출 - 친구야 함께 가자

2010. 8. | 강원도 동해시 동해청소년수련관  
★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 사과나무공부방, 소망을찾는이지역아동센터, 생명나무지역아동꿈터, 혜심지역아동복지센터 어린이 107명  
★ 친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과 친밀감을 강화한다.



### ♥ 충남 서천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네 마음을 보여줘

2010. 8. 11~13 | 충남 부여 청소년수련원  
★ 삼산·엔학고래·성일·서천·목양·시선·아이스터디·민들레·비전·도둔중앙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14명  
★ 다양한 미술매체를 활용한 자기내면 마음의 자유로운 표현과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작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마련한다.



### ♥ 안양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함께 사는 지역사회 안양을 꿈꾸는 아이들

2010. 8. 16~18 | 경기도 강화성산 청소년수련원  
★ 한숲·해오름·충훈부·우리·영림·사랑·꿈터·동안·참사랑·꿈꾸는·행복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22명  
★ 아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미래 지역시민을 구상해보고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자신있게 인생을 영위해 나가는 주체로서 자라나게 하자.



### ♥ 순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모험! 개척! 생존캠프

2010. 8. 9~11 | 전남 순천평화학교  
★ 황월·서면·하고을·장천·선평·매곡·용당·풍덕·연향동·동순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78명  
★ 섬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통해 과학지식을 익히고 문제해결을 통한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적응, 협동, 창의, 지혜, 지식, 인내, 용기, 모험심을 키운다.



즐거운 캠프를 준비해준 고마운 분들께 ♥



♥ 작은지역아동센터 연합  
인천에서 땅끝까지 하나 되는 우리

2010. 8. |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지역아동센터
- ★ 선민아이들세상·땅끝마을·석남·예향꿈터·충효·하늘씨앗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90명
  - ★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남도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친구를 만나 사회성을 키운다.



♥ 곡성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골짜나라 친구들이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어울림한마당

2010. 8. | 전남 곡성군 심청문화센터
- ★ 원동·전남과학대·주산·현정·백곡·석곡·목석죽·꿈나라·곡성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20명
  - ★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저소득가정의 친구들이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태풍과 함께 해도 즐거운 캠프

2010년 연합캠프는 여수 금오도와 안도 일대의 섬 체험 캠프였으나 일정 당일 태풍 덴무를 만나 '아이들!! 태풍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내용을 변경.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비가 약간 오는 상태여서 그나마 수정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다른 센터와 합류하고 나니 비가 많이 내려서 체험행사를 취소해야하는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 비가 또 내리니 아이들이 재난영화를 찍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역시 아이들의 상상력은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센터에 돌아와서 캠프 후일담을 늘어놓는 아이들.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 동안 아이들이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대나무뿔시나 바지락 체험은 처음이라 어려워했지만 그래도 곧잘 따라하는 아이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나중에 추억이 될 것을 알기에 기분이 좋습니다. 편하기만 했던 캠프라면 금방 잊혀지겠지만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밥도 해먹어보고 경험한 것들이라서 기억에 남을 만한 캠프가 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 풍덕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선경아**

♥ 청주 사랑의 한울타리  
꿈과 자연생태를 찾아 떠나는 발명왕 캠프

2010. 8. | 강원도 대관령유스호스텔
- ★ 초록나무·청주북부·방주·희망·신나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94명
  - ★ 바다가 없는 청주의 특성상 동해바다를 체험해보고 서해바다의 특성과도 비교해본다. 등산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함을 배운다.



♥ 온새미로  
놀멍, 걸으멍 크는 아이들

2010. 8. 11~13 | 제주도 대평마을
- ★ 우리동네·더불어숲·빛과소금·푸른꿈작은·봉아름·늘푸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50명
  - ★ 울래와 마을길을 걸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과 동화되는 시간을 가져본다. 마을 속 보물찾기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예의를 배워보자.

♥ 일곱 빛깔 무지개 품앗이  
일곱 빛깔 무지개의 작은 어울림

2010. 8. 9~11 | 경남 함안군 아라청소년수련원
- ★ 은평지역아동센터, 씨앗행복한홈스쿨, 삼정·해바라기·두리꿈아이들 지역아동센터, 1318사과나무, 불암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2명
  - ★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많은 경험과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대전지부  
너, 나, 우리!!

2010. 8. | 충남 금산군 꿈의동산
- ★ 대전열린·구암·남대전·늘푸른·성민·성실·주보라·태평 지역아동센터, 1318Happyzone하늘세상, 꿈꾸는아이들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청소년자원봉사자 100명
  - ★ 조별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폭넓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력 향상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 A 재미있는 우리 센터 영어교실로 오세요!

9월부터 새로이 12개 기관 포함해  
모두 54개 기관에서 영어교실 진행해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여성들의 순수봉사단체인 미래희(회장 홍수정)의 재정후원으로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가 공부방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과 영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자가 1주일에 1~2회 공부방을 방문해 영어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수업이 진

행된다. 교재와 수업에 필요한 기  
자재,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기간은 3개월로 1년에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2010 3월~6  
월 13차, 6월~9월 14차가 진행되어 95개 공부방  
710명의 어린이가 영어교실에 참여했고 9월부터 12  
월까지의 새로이 12개 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54개  
공부방이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 15차 지원 기관

광주문흥골지역아동센터(광주)	다음세대지역아동센터(대전)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인천)	정금지역아동센터(대전)
구암지역아동센터(대전)	동산지역아동센터(충북)	소망지역아동센터(대전)	조은지역아동센터(경기)
극동지역아동센터(대전)	동안지역아동센터(경기)	씨앗지역아동센터(서울)	주사랑지역아동센터(경기)
꿈나무지역아동복지센터(경기)	둘레랑스지역아동센터(전북)	에스더지역아동센터(충남)	지역아동센터아깨뽀공부방(충북)
꿈동산지역아동센터(진안)	리이프지역아동센터(경기)	엘림지역아동센터(전북)	참사랑지역아동센터(광주)
꿈이있는푸른학교(서울)	마리아지역아동센터(강원)	열린지역아동센터(대전)	천응방과후교실(서울)
꿈자리지역아동센터(충남)	무지개지역아동센터(광주)	예심지역아동센터(경기)	초차마을지역아동센터(경기)
꿈쟁이지역아동센터(대전)	무지개지역아동센터(익산)	예향꽃터지역아동센터(인천)	춘천반석지역아동센터(강원)
꿈쟁이지역아동센터(여수)	문흥지역아동센터(광주)	오정지역아동센터(대전)	평화디딤돌지역아동센터(전북)
나래지역아동센터(서울)	반여지역아동센터(부산)	원미지역아동센터(경기)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인천)
내외지역아동센터(경남)	법동지역아동센터(대전)	월곡청소년센터방과후교실(서울)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인천)
늘푸른지역아동센터(충북)	봉덕지역아동센터(경남)	이현지역아동센터(대구)	행복한지역아동센터(광주)
다솜지역아동센터(광주)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광주)	희망지역아동센터(광주)	
	석남지역아동센터(인천)	전농방과후교실(서울)	

## ‘오유’가 있어 신나는 수요일 - 우리 영어교실에서는 모두가 학생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질풍노도의 시기에 전학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린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때 공부방에서 학교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고, 공부방의 선생님들은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 사춘기 시절 제 고민과 걱정들의 무게도 줄여주셨습니다. 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줬던 공부방 선생님들처럼 저 역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과 후에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공부방의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헤아릴 수 있을 거라는 선생님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파닉스 영어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9년 2월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유희의 유쾌한 파닉스 영어교실’ 일명 오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과목도 아닌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지금도 선생님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기간이 되면 영어수업을 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아이들과의 수업이 제 성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은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1주일에 한번씩 아이들과의 만남은 제게도 활력소가 되고 또한 아이들은 역시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

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유로 수업을 쉬는 것은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여유로움과 함께 아이들을 이끄는 데 노하우 역시 쌓였습니다. 중요한 목적은 “영어단어를 보고 영어를 직접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식 때문에 아이들에게 간단한 단어라도 천천히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다고 징징대고 숙제 줄여달라고 때

“  
저학년 어린이들이 천천히 읽어도  
직접 영어를 읽을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직 제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칩니다.”

쓰던 아이들은 현재 새로운 영어 단어를 보면 수업시간에 배운 영어발음소리를 이용하여 단어를 읽어보려고 하고,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간판도 읽는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영어를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 가르치는 저로서는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시험을

보거나 숙제를 할 때 혼자서만 하려고 하는 이기주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1년 넘게 진행하면서 아이들도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즐거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틀린 문제를 알려주고, 숙제를 미처 다 하지 못한 친구 옆에서 응원하고 알려주며 숙제를 다 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영어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챙기는 공동체의식이 생기고, 지역사회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을 먼저 위하는 마음이 성장하고 있으며 혼자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훌쩍 큰 키만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도 함께 성장한 아이들을 보며 더 뿌듯합니다.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입니다.

오유희 - 공주정보고등학교 3학년  
지역아동센터에스더학교 자원봉사자

# 서울에 갔던 추억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여수지역 공부방 어린이들  
2박 3일 서울 방문



서울초청행사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연례행사이다. 올해는 전남 여수지역의 돌산지역아동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여수지역아동센터, 열린지역아동센터, 문수지역아동센터, 안산지역아동센터, 부림지역아동센터, 쌍봉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과 교사 83명이 서울을 방문했다.

지방 공부방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는 가정환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서울여행이 어려운 지방의 공부방 어린이들이 그 대상이다. 올해 서울을 방문한 어린이들도 서울을 방문한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이가 거의 대부분이다.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볼 수 있었던 서울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다니며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문화적 감수성과 친화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월 24일 ~ 26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 어린이들은 첫날 OBS경인TV의 방송역사체험관, 남산 N타워의 서울야경을 시작으로 둘째날에는

아쿠아리움, 국립중앙박물관, 창덕궁 방문과 자유시간으로 채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마지막날에는 어린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 옛날에는 TV가 귀했나요?

서울에서 제일 먼저 OBS방송국에 갔다. 나는 가수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수는 못보고 옛날 TV랑 카메라를 보았다. 옛날 TV를 해부한 것을 보았는데 TV 속이 신기했다. 옛날에는 TV가 귀하다고 해서 장롱같이 문이 달려 있었다. 얼마나 TV가 귀하면 문이 달려있었던 건지 그게 제일 신기했다. 그 다음에는 방송하는 곳에 가서 방송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도 보았다. 어떤 것은 TV가 많이 연결되어 있었다. 모르는 말들이 많았고 사용하는 장비들이 신기했다.

— 돌산지역아동센터 채충실

팝핀 놀이동산 에버랜드를 방문해 다양한 볼거리와 새로운 체험에 도전했다.

어린이들의 서울방문을 위해 해마다 후원금을 지원해 온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정경애)은 올해 초청행사를 위해 4,000달러를 후원했다.

## 돌아와 생각해 봐도 무서웠던 롤러코스터

처음에 서울에서 여수에 있는 아동센터를 초청한 다기에 우리 공부방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뽑혔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다. 그런데 정말로 나와 11명의 친구, 동생들이 뽑혀서 서울을 가게 되었다. 21일부터 준비를 했다. 23일 저녁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드디어 출발을 할 때! 내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것도 같고 마음이 설레고 기대도 되었다.

4~5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다. 쌍둥이 빌딩도 보고 여수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높은 건물들도 보았다. 둘째날 저녁에는 청계천과 명동거리를 걸으며 아이스크림도 먹었다. 마지막날은 에버랜드에서 사파리를 보러 가는데 줄이 너무 길었다.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려서 사자, 백호, 기린, 곰, 얼룩말 등을 보니 신기하다. 롤러코스터는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인 만큼 줄도 길었다. 한참을 기다려 타는데 정말 무서웠다. 여수로 돌아와 생각해 봐도 롤러코스터는 너무 무섭다. 다른 센터의 친구들과도 친하게 놀 수 있어서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 여수한빛지역아동센터 최희진

## 글로벌어린이재단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김예나입니다. 꼭 가보고 싶었던 서울을 가보아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서울에 갈 줄은 몰랐는데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탔을 때는 정말 타고 싶었던 거라 정말 좋았어요. 어린이박물관도 가고 아쿠아리움도 갔는데 어린이박물관에서는 퀴즈도 맞춰서 예쁜 수첩도 받았습시다. 기분이 정말 기뻐고 좋았습니다. 에버랜드에서는 타고 싶었던 놀이기구들을 타고 귀여운 캐릭터와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게 해주신 사랑의 친구들 여러분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에 갔던 추억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항상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 김예나 올림



## 목도리 1,500점 겨울 오기 전에 북한에 보낼 계획

9월 8일 이희호 명예회장, 자원봉사자 참여해 포장작업 마쳐



사랑의 친구들은 질병과 기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사랑의 목도리 뜨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1만원의 후원금으로 하나의 목도리를 짤 수 있는 목도리 키트를 구입한 후 목도리를 직접 완성해 돌려보내주면 이 목도리들을 모아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다.

3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에 참여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여름내 뜬 목도리가 1,500개. 4월 19일과 22일에는 뜨개 모임을 갖고 이희호 명예회장



을 비롯해 박영숙 초대총재와 이 사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목도리는 어린이와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원통형의 토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9월까지 이희호 명예회장이 400여 개에 달하는 목도리를 뜬 것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이 한코 한코 정성을 기울여 완성한 목도리들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9월 8일에는 포장작업을 완료했다.

사랑의 친구들은 한국의 유진벨재단을 통해 북한에 목도리를 전달하기로 하고, 유진벨재단은 올 겨울이 오기 전에 북한에 보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반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포장작업에는 이희호 명예회장을 비롯해 사랑의 친구들 이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 여덟 번째 하우스 투어 열려

국립디지털도서관, 성북동 한옥, 주한영국대사관저 등 돌아봐



하우스 투어는 사랑의 친구들이 펼치는 공부방 지원사업에 사용될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야기가 있는 집, 개성있는 집을 가진 주인은 집을 투어 참가자에게 개방하고 투어 참가자는 참가비로 후원금 조성에 참여한다.

일반인들이 좀처럼 방문하기 힘든 대사관저와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집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집 주인의 독특한 개성을 엿볼 수 있다. 4월 21일 진행된 하우스 투어에는 모두 32명이 투어에 참여해 국립디지털도서관, 심 실씨의 성북동 한옥, 마틴 유든 주한영국대사의 관저를 방문했다.

국립디지털도서관 모철민 관장이 디지털도서관의 시설에 이용과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특별기획전시 중인 조선왕조의 글씨 전시장을 참가자들에게 공개했다. 하우스 투어를 위해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버스를 후원하고 투어에 참여한 이순례 사랑의 친구들 이사가 점심을, 성북동 한옥을 개방한 심 실씨가 투어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 하우스 투어에 참여하려면

9번째 하우스 투어가 11월 13일(토)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한 우쿠라이나대사관저와 성북동의 전통한옥 성낙원을 비롯해 아름다운집 4곳이 공개됩니다. 하우스 투어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전액 사랑의 친구들의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2만원입니다. 참여를 원하실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 (02 734-4945)

(정기총회) 제 12차(2.24)  
 (이사회) 제 24차(2.24), 제 25차(8.26)  
 (운영위원회) 제 120차(2.24), 제 121차(4.15), 제 122차(5.13), 제 123차(6.24)  
 (기획자문위원회) 제 52차(4.2)



◎ 13차 임시총회



사랑의 친구들 제13차 임시총회가 지난 8월 26일 사랑의 친구들 2층에서 열렸다. 임시총회에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사랑의 친구들의 기부금 단체 재지정에 필요한 정관 개정에 관해 토의했다.

기부금 단체 지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사랑의 친구들 지정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므로 보건복지부에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현재의 정관에는 규정이 없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해야 하므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관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자문을 얻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참석회원들이 이 내용을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정관변경에 찬성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한국녹색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숲 속 꾸러기 캠프' (9차)



사랑의 친구들과 한국녹색문화재단이 함께 하는 '숲 속 꾸러기 캠프'가 지난 7월 22일~23일 강원도 청태산 숲체육원에서 열렸다.

'숲 속 꾸러기 캠프'는 대자연속에서 모험, 협동, 체험을 통해 건강한 자아상을 세우고 창의적인 생각과 자발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특별한 목공체험 활동과 오감을 통해 숲을 체험함으로써 자연과 소중하고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캠프 프로그램이다.

인천, 경북, 경기도 지역의 1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211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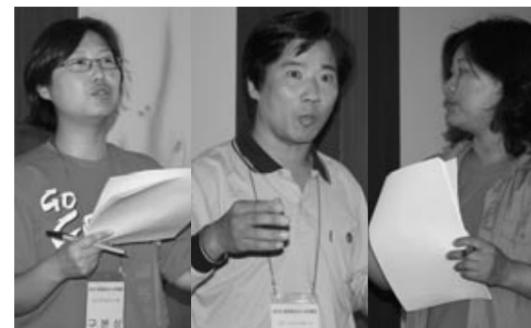
◎ 미스터피자 '사랑의 장학금'

한국 미스터피자에서는 2005년 1월부터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매월 5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0년에도 전국 50곳의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5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을 사용하는 어린이는 교육비와 생활비 중 택 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0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

- 홈페이지 공지 (2.22) / 총 41개 연합 신청 (3.22)
- 설명회 개최: 총 34개 연합 59명 참석 (3.5)
- 11개 선정 연합 및 지원액 홈페이지 공지 (4.20)
- 약정식: (5.17) / 총 11개 연합 16명 참석

◎ 공부방 교사 사전캠프



사전캠프는 연합캠프를 직접 수행할 공부방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캠프 프로그램이다. 올해 11개 연합체의 캠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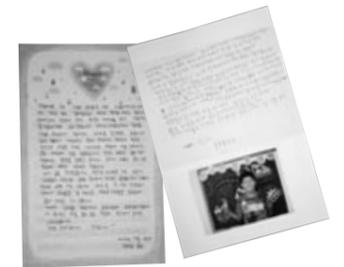
16일~18일 안양지역아동센터연합회, 군산 사랑의 이웃사촌, 청주 사랑의 한올타리, 제주 온새미로, 인천 작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공부방 교사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사전캠프에 참여한 교사들은 워크숍을 통해 준비하고 있는 연합캠프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았다.

◎ 개별아동 후원

한달에 5만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어린이들에게는 적지만 소중한 돈이다. 후원자와 어린이를 1대 1로 연결하여 후원하는 개인 후원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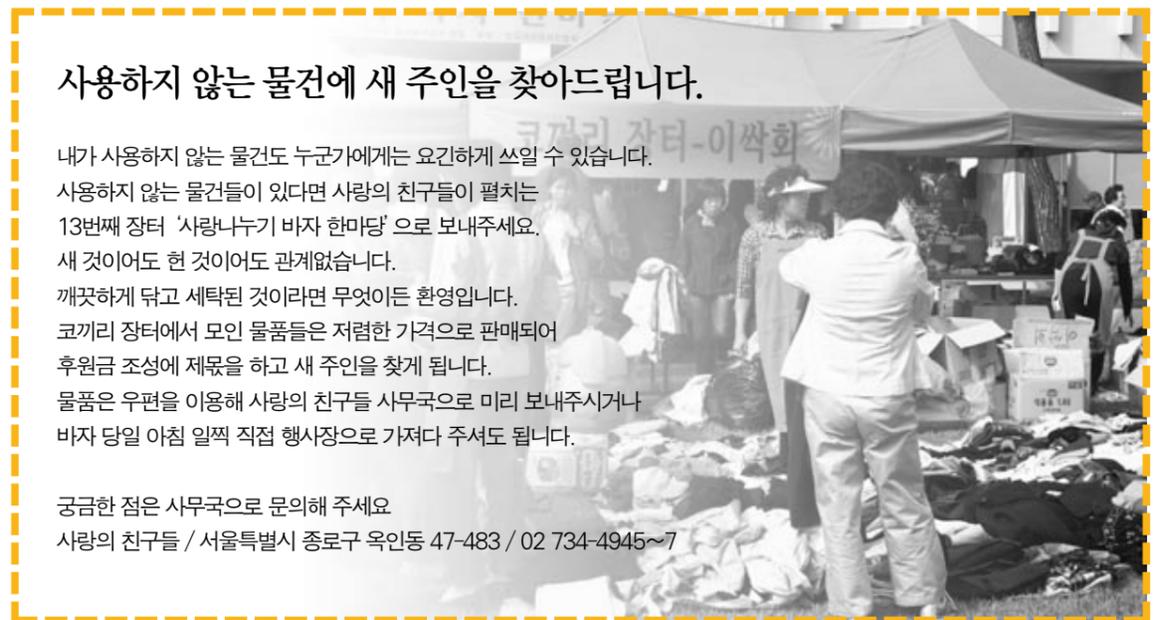
<후원자>  
 인재근, 김병준, 최병철, 신선련, 김흥기, 정명화, 조효연, 김철용, 이순례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새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누군가에게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면 사랑의 친구들이 펼치는 13번째 장터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으로 보내주세요. 새 것이어도 헌 것이어도 관계없습니다. 깨끗하게 닦고 세탁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환영입니다. 코끼리 장터에서 모인 물품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후원금 조성에 제몫을 하고 새 주인을 찾게 됩니다. 물품은 우편을 이용해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으로 미리 보내주시거나 바자 당일 아침 일찍 직접 행사장으로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  
 사랑의 친구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483 / 02 734-4945~7



◎ 사랑의 간식나누기



• 18기 (10개 기관 선정) 2010.1.5~6.29

서울(1개 기관): 아름다운땅 지역아동센터  
 익산(3개 기관): 부송·서강·영생 지역아동센터  
 청주(3개 기관): 초록나무·방주·희망 지역아동센터  
 광주(3개 기관): 양산·건국·일동 지역아동센터

• 19기 (12개 기관 선정) 2010.7.13~12.28

서울(1개 기관): 소망을찾는이 지역아동센터  
 안양(6개 기관): 꿈꾸는·꿈터·동안·참사랑·한숲·행복 지역아동센터  
 군산(5개 기관): 꽃동산·생명샘·아이소리·엘림·열린학교 지역아동센터

◎ 미래회 어린이앨범 기증



미래회에서는 6월 24일 앨범제작회사인 토스앤리로부터 후원받은 어린이 앨범 500개를 사랑의 친구들에 기증했다. 이 앨범은 미래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47곳에 지원했다.

◎ (주)대상 햄, 참치 등 물품 후원



(주)대상이 지난 8월 17일 햄 139박스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햄은 2011년 1월 26일 있을 사랑의 떡국나누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된장과 깃갈류를 비롯한 식품류 90박스도 함께 기증해 필요로 하는 공부방에 지원하기로 했다.

◎ 이재중 이사 컴퓨터 기증

사랑의 친구들 이재중 이사와 C&A 아카데미교육그룹 지난 6월 15일 컴퓨터 20대와 모니터 20대를 기증했다. 기증받은 컴퓨터는 새것과 사용하던 제품이 섞여있으며 컴퓨터가 꼭 필요한 공부방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중 이사와 C&A아카데미교육그룹의 논술교사들은 빈곤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매일 후원금을 모아 사랑의 친구들을 후원하고 있다.

◎ 한현옥 회원 물품 기증

한현옥 회원이 사용하던 에어컨 2대와 석유난로 2대, 옷장 하나를 1월 28일 사랑의 친구들에 기증했다. 한현옥 회원의 기증물품은 사랑의 친구들 홈페이지 물품나누기를 통해 6월 29일에는 안양꿈터지역아동센터에 석유난로 2대를, 7월 22일에는 동안지역아동센터에 에어컨 2대를 각각 지원했다.

사랑의 친구들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병선	강보연	강성군	강태형	경옥호	곽선례	권경희	권미영	권영진	권정미	권태미	김 솔	김경희	김교은
김금하	김기창	김남훈	김도우	김문규	김미애	김병준	김병훈	김상우	김성민	김성오	김성우	김세정	김세호
김소민	김송이	김순자	김시은	김연환	김완기	김용재	김용주	김은필	김인섭	김장곤	김재숙	김정현	김정희
김종량	김주희	김지은	김하영	김하자	김현우	김현주	김형민	김홍기	김홍배	남순희	남정수	남정열	남창우
남희정	노경중	노미자	노영혜	노윤화	노지혜	노현자	문수진	문여상	문정순	문지혜	문혜영	미래희	박경숙
박금옥	박동찬	박병근	박상지	박선영	박성미	박성진	박수정	박어상	박용상	박윤희	박은경	박재욱	박정선
박정임	박종대	박종렬	박주아	박주희	박진영	박창우	박태순	박필규	박필원	박혜선	방미애	방병찬	배민영
배영옥	배장훈	서유리	성낙진	성민재	성인숙	송도순	송석호	송성은	송요선	신선련	신옥자	신용희	신철진
안정연	안종길	안창민	양경원	양근영	여성숙	여성오	염미자	오경임	오영란	오용탁	오진숙	오차환	우자원
우정희	유은희	윤기혁	윤삼성	윤상현	윤석남	윤은정	윤현봉	이건상	이경민	이경숙	이경순	이계호	이기정
이동건	이동주	이명순	이미강	이미경	이미정	이민희	이상미	이선옥	이성호	이소령	이승현	이영종	이요환
이우근	이원웅	이은경	이은성	이은숙	이재중	이정미	이정원	이종영	이종욱	이철우	이혜경	이희숙	이희철
인재근	임동원	임선자	임수연	임준수	임혁국	임희선	임희진	장서연	전경희	전연옥	전현신	정명화	정미라
정옥자	정우상	정유선	정은숙	정재영	정정례	정호진	조기제	조남철	조대우	조성민	조성실	조시현	조용숙
조주영	조평환	조효언	주영숙	차수연	차순걸	채정아	최동균	최병철	최일용	최재천	최정란	최지은	최해경
최혜선	최 현	최혜운	태장호	하원호	한미향	한신남	한은주	함은경	허선연	허 장	현병철	현진옥	홍준표
홍진표	황나현	황영주	황예진	황정희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글로벌어린이재단	나드리루센스화장품	강남21본부	동양증권	만사모		
연합뉴스	예수의성모관	C&A아카데미교육그룹	(주)미스터피자	코람코자산	허버지역아동센터	한양대학교							
(합)삼하사													

사랑의 목소리 뜨기를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경희	김정열	강순원	김경실	김경애	김근태	김금옥	김기선	김동규	김명준	김미애	김병민	김병준	김성수
김수정	김순자	김은화	김인영	김재원	김정현	김지연	김진희	김홍남	문경생	박미남	박상준	박영숙	박은경
박은석	박태경	박필규	박희경	배외숙	배은영	배주영	백봉현	백진숙	변인식	성낙진	송기복	송 산	심해섭
윤미정	윤현봉	이명숙	이미경	이미정	이성희	이수금	이수민	이정원	이종욱	이춘형	이해남	이혜경	이희호
인사모	인재근	조홍식	주민자	주상희	최병일	최소영	최옥희	최진이	한선희	Ratzer	5.17가족		

물품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스앤리(앨범)	대한항공(사랑의 간식나누기)	(주)대상(식품)
C&A아카데미교육그룹(컴퓨터, 모니터)	롯데칠성(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한현옥(에어컨, 석유난로, 옷장)
김보경(한지)	아시아나(사랑의 간식나누기)	신한금융투자회사(하우스 투어)

연락처 등이 누락돼 기부하신 후원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팀(담당 김미정) : 734-4945 ~ 7 /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483